



numbers
vol. 306

목회를 그만둔 전직 미국 목회자 조사 전직 목회자가 전하는 목회 성공 조언, ‘가족 우선시’!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① 추석 연휴 발생한 가정폭력 현황
- ②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 인식
- ③ 한국인의 나이와 수명에 대한 인식

[넘버즈 칼럼]

21세기 전쟁과 교회의 응답: 정당한 전쟁은 가능한가?

2025. 10. 14.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전직 목회자가 전하는 목회 성공 조언, ‘가족 우선시’!

미국의 대표적 기독교 조사 기관인 라이프웨이리서치가 최근 목회를 그만둔 전직 미국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2025년 목회자 이탈 조사’(Pastor Attrition Study 2025) 자료를 발표하였는데, 한국교회에서도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이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 전직 목회자 3명 중 1명은 45세 이전에 목회 강단을 떠났는데, 이들이 목회직을 떠난 가장 큰 이유는 ‘소명의 변화’(40%)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직 목회자의 절반 가까이(45%)는 목사로 사역한 마지막 해에 교회에서 심각한 갈등을 경험했으며, 사역 측면에서는 하루 24시간 대기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 경우도 8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넘버즈 306호> 미국 전직 목회자들의 사례를 통해 현직 목회자와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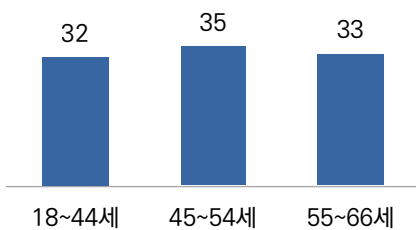
01

[전직 목회자 일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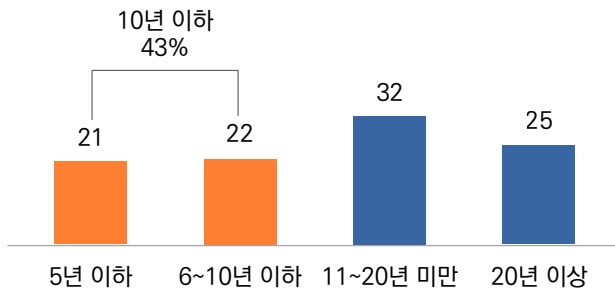
미국 전직 목회자 3명 중 1명, 45세 이전에 목회 그만뒀다!

- 미국 4개 개신교 교단(하나님의 성회, 나사렛교, 웨슬리안교, 남침례교단) 소속 전직 목회자 7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전직 목회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다.
- 담임목사로서 사역을 중단한 나이는 다양했다. 33%는 '55~66세'에 강단을 떠났지만, '45~54세'(35%)와 '44세 이하'(32%)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3명 중 1명은 45세 이전에 목회를 그만둔 셈이다.
- 담임목사로서 총 시무한 기간은 '10년 이하'(5년 이하 21%, 6~10년 이하 22%)가 43%에 달해 전직 목회자 10명 중 4명 이상은 10년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담임목사로서 사역을 중단한 나이 (미국 전직 목회자, %)



[그림] 담임목사로서 총 시무 연수 (미국 전직 목회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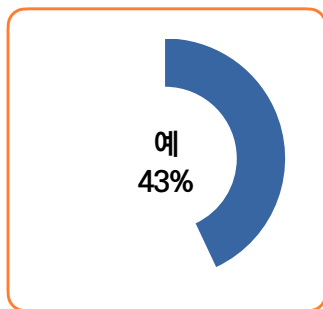


※출처 : 라이프웨이리서치, '2025년 목회자 이탈 조사'(Pastor Attrition Study 2025), 2025.08. (하나님의 성회, 나사렛 교회, 웨슬리안 교회, 남침례교 등 4개 개신교 교단의 전직 담임목사 730명, 온라인 조사, 2025.05.06.~07.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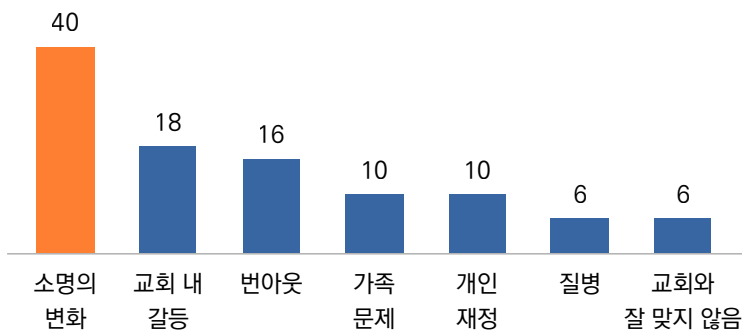
목회직 떠난 가장 큰 이유, '소명의 변화'(40%)!

- 미국 전직 목회자의 43%는 마지막 교회가 담임목사로서 첫 임지(교회)라고 응답했다.
- 한편, 목회직을 떠난 이유로는 '소명의 변화'(40%)를 가장 높게 꼽았다. 이어 '교회 내 갈등'(18%), '번아웃'(16%), '가족 문제'(10%), '개인 재정'(10%) 등의 순이었다.

[그림] 담임목사로서 처음으로 섬긴 교회 (첫 임지) 여부 (미국 전직 목회자)



[그림] 목회직을 떠난 이유 (미국 전직 목회자, 중복응답, 상위 7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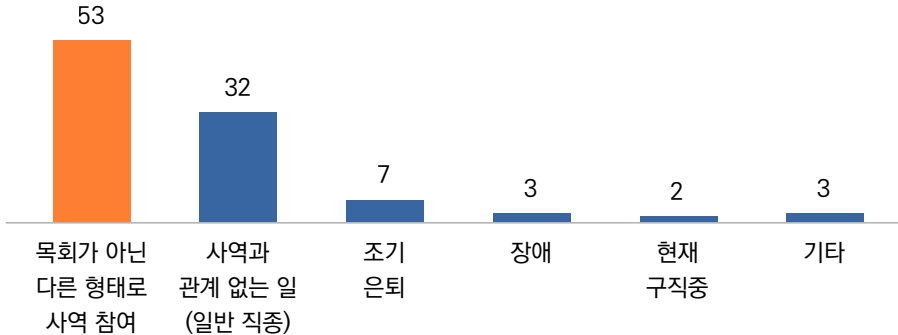


※출처 : 라이프웨이리서치, '2025년 목회자 이탈 조사'(Pastor Attrition Study 2025), 2025.08. (하나님의 성회, 나사렛 교회, 웨슬리안 교회, 남침례교 등 4개 개신교 교단의 전직 담임목사 730명, 온라인 조사, 2025.05.06.~07.06.)

전직 목회자 절반 이상(53%), ‘목회 외 다른 형태로 여전히 사역중’!

- 목회를 그만두고 현재 하는 일을 묻는 질문에 전직 목회자 절반 이상은 목회가 아닌 다른 형태로 여전히 사역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 외 ‘사역과 관계 없는 일(새로운 직업)’ 32%, ‘조기 은퇴’ 7% 등이 뒤를 이었다.

[그림] 목회를 그만두고 현재 하는 일 (미국 전직 목회자, %)



※출처 : 라이프웨이리서치, ‘2025년 목회자 이탈 조사’(Pastor Attrition Study 2025), 2025.08. (하나님의 성회, 나사렛 교회, 웨슬리안 교회, 남침례교 등 4개 개신교 교단의 전직 담임목사 730명, 온라인 조사, 2025.05.06.~07.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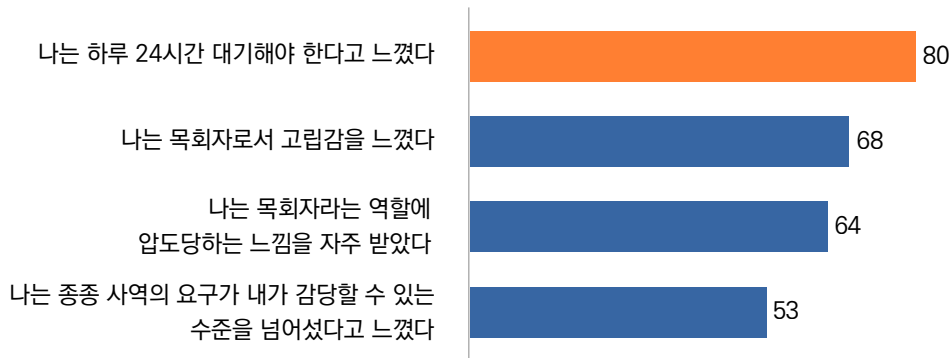


[사역 문제]

전직 목회자 80%, ‘24시간 대기 압박 느껴’!

- 사역 문제 관련 인식을 살펴보면, 전직 목회자의 80%는 ‘하루 24시간 대기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으며’, ‘목회자라는 역할에 압도당하는 느낌을 자주 받았다’는 비율도 64%에 달했다.
- 또한, 절반 이상(53%)은 ‘사역의 요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느끼는 등 심리적 압박이 상당했음을 보여준다.
- ‘목회자로서 고립감을 느꼈다’도 3명 중 2명가량(68%)이 동의해, 사역 부담이 단순히 업무 과중에 그치지 않고, 정서적 고립까지 초래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사역 문제 관련 인식 (미국 전직 목회자, ‘매우+약간 동의함’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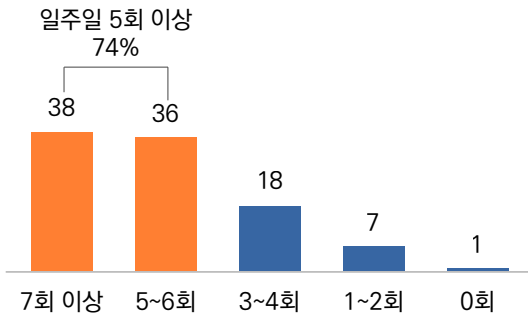
※출처 : 라이프웨이리서치, ‘2025년 목회자 이탈 조사’(Pastor Attrition Study 2025), 2025.08. (하나님의 성회, 나사렛 교회, 웨슬리안 교회, 남침례교 등 4개 개신교 교단의 전직 담임목사 730명, 온라인 조사, 2025.05.06.~07.06.)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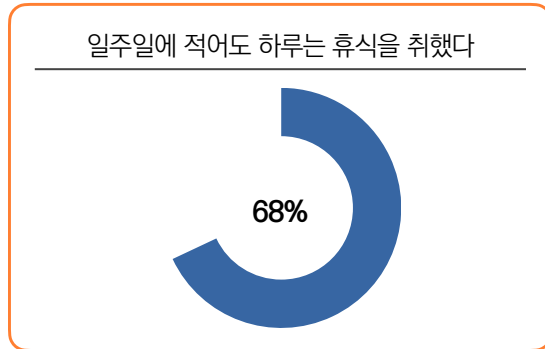
전직 목회자, ‘개인적 경건생활’과 ‘휴식’ 대체로 지켜냈다

- 전직 목회자 4명 중 3명(74%)은 ‘일주일에 5회 이상’ 주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가졌다고 응답해, 설교·공과 준비와는 별도로 꾸준히 경건생활을 이어갔음을 보여준다.
- 또한 10명 중 7명(68%)은 목회 활동에서 벗어나 일주일에 최소 하루는 휴식을 취했다고 답해, 목회 활동의 강한 압박 속에서도 일정한 쉼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이는 전직 목회자들이 영적 생활과 자기 관리 사이의 균형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자 노력했음을 시사한다.

[그림] 설교나 공과준비 외에 주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보낸 횟수 (미국 전직 목회자, 한 주 기준, %)



[그림] 휴식 (미국 전직 목회자, ‘매우+동의함’ 비율*, %)



※출처 : 라이프웨이리서치, ‘2025년 목회자 이탈 조사’(Pastor Attrition Study 2025), 2025.08. (하나님의 성회, 나사렛 교회, 웨슬리안 교회, 남침례교 등 4개 개신교 교단의 전직 담임목사 730명, 온라인 조사, 2025.05.06.~07.06.)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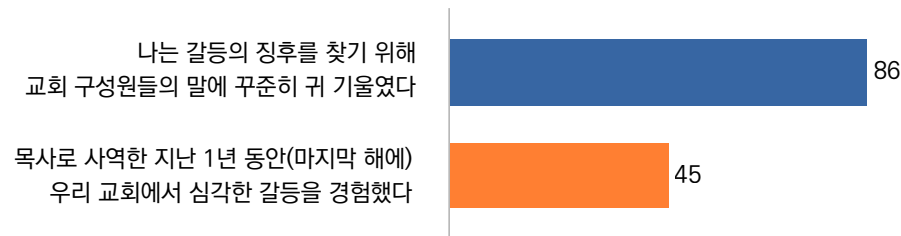
03

[사역 시 교회 갈등]

전직 목회자 45%, 목회 마지막 해 교회에서 심각한 갈등 경험!

- ‘교회 갈등’과 관련된 항목의 동의율을 살펴보면 미국 전직 목회자의 절반 가까이(45%)는 ‘목사로 사역한 마지막 해에 교회에서 심각한 갈등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 그러나 대다수는 ‘갈등의 징후를 찾기 위해 교회 구성원들의 말에 꾸준히 귀 기울였다’(86%)고 응답해 갈등을 미리 인지하고, 예방하려는 노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교회 갈등 관련 인식 (미국 전직 목회자, ‘매우+약간 동의함’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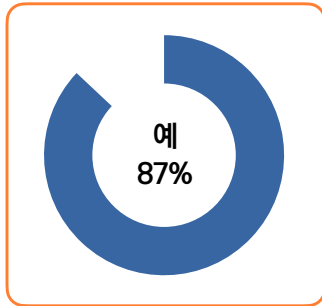
※출처 : 라이프웨이리서치, ‘2025년 목회자 이탈 조사’(Pastor Attrition Study 2025), 2025.08. (하나님의 성회, 나사렛 교회, 웨슬리안 교회, 남침례교 등 4개 개신교 교단의 전직 담임목사 730명, 온라인 조사, 2025.05.06.~07.06.)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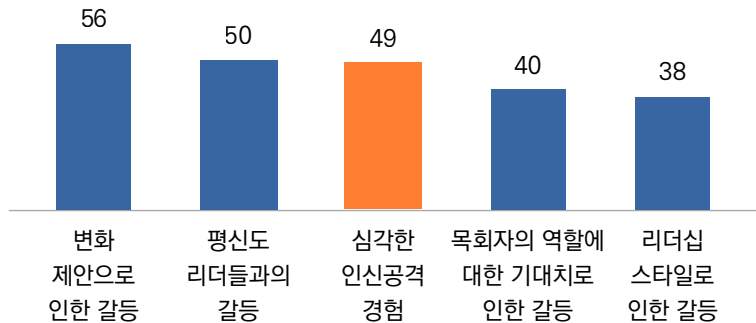
마지막 교회에서 겪은 갈등, 절반이 심각한 인신공격 받음!

- 미국 전직 목회자의 87%는 마지막 사역지(교회)에서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한 갈등 유형으로는 '변화 제안으로 인한 갈등'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평신도 리더들과의 갈등'(50%), '심각한 인신공격 경험'(49%)이 절반 정도 응답됐다.
- 또한 전직 목회자 5명 중 2명은 '목회자 역할'(40%)이나 '리더십 스타일'(39%)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갈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마지막 사역지(교회)에서 갈등 경험률
(미국 전직 목회자)



[그림] 이전(마지막)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경험한 갈등 유형
(미국 전직 목회자, 중복응답, 상위 5개, %)



※출처 : 라이프웨이리서치, '2025년 목회자 이탈 조사'(Pastor Attrition Study 2025), 2025.08. (하나님의 성회, 나사렛 교회, 웨슬리안 교회, 남침례교 등 4개 개신교 교단의 전직 담임목사 730명, 온라인 조사, 2025.05.06.~07.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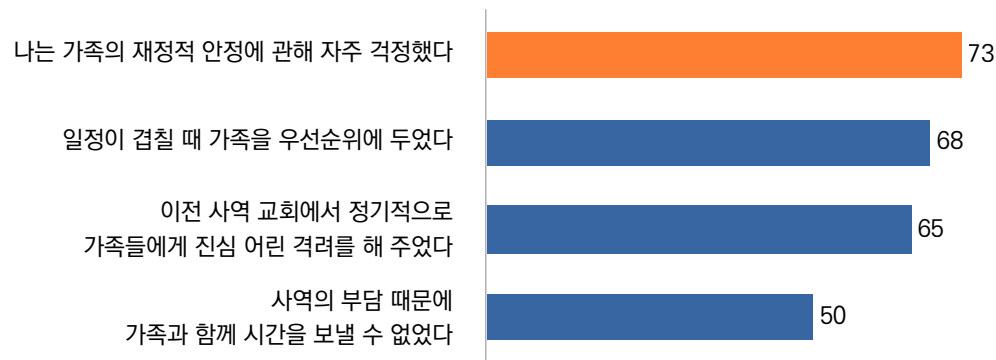
04

[가족 문제]

전직 목회자 73%, '가족의 재정적 안정 자주 걱정했다'

- 이번에는 전직 목회자들의 가족 관련 인식을 살펴본다. 전직 목회자 10명 중 7명(73%)은 '가족의 재정적 안정에 대해 자주 걱정했다'고 응답했으며, 절반(50%)은 '사역 부담 때문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는 목회 현장에서 흔히 겪는 '사역 우선'과 '가족 돌봄'의 딜레마를 보여준다.
- 동시에 68%는 '일정이 겹칠 때 항상 가족을 먼저 생각했다'고 응답해, 목회자들이 내면적으로는 가족의 우선순위를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또, '이전 사역 교회에서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격려를 해 주었다'는 비율도 65%로 나타나, 목회 사역의 긍정적 측면도 눈에 띄었다.

[그림] 가족 관련 인식 (미국 전직 목회자, '매우+약간 동의함' 비율*, %)



※출처 : 라이프웨이리서치, '2025년 목회자 이탈 조사'(Pastor Attrition Study 2025), 2025.08. (하나님의 성회, 나사렛 교회, 웨슬리안 교회, 남침례교 등 4개 개신교 교단의 전직 담임목사 730명, 온라인 조사, 2025.05.06.~07.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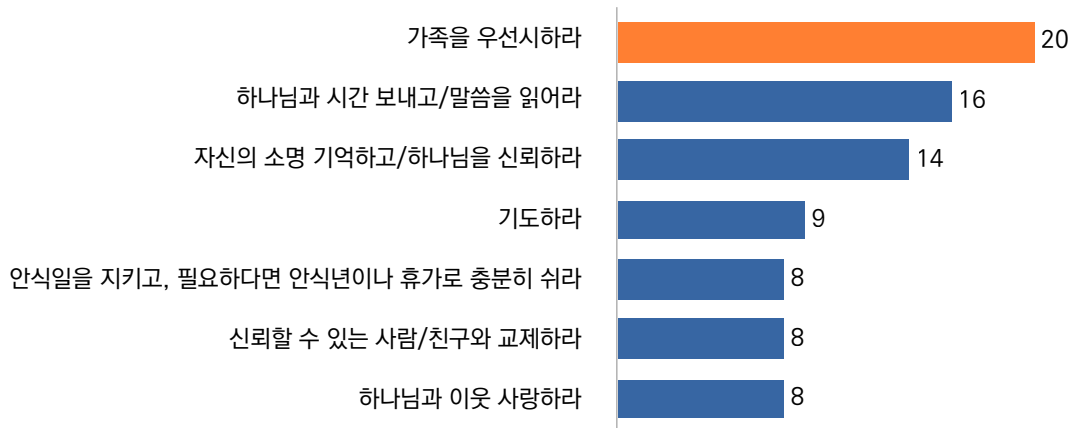
*4점 척도

05

[현직 목회자/교회를 위한 조언] 전직 목회자가 전하는 목회 성공 조언, ‘가족 우선시!’

- 전직 목회자들에게 현재 목회자들의 사역 성공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물었을 때, 전직 목회자들은 ‘가족을 우선시하라’(20%)는 조언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는 목회 사역이 아무리 중요해도 가정의 안정이 목회 지속의 토대임을 보여준다.
- 이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말씀을 읽어라’(16%), ‘자신의 소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14%), ‘기도하라’(9%)는 응답이 뒤따랐다. 개인 영성과 소명 의식이 목회의 핵심임을 확인시켜주는 지표이다.

[그림] 현재 목회자들이 사역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조언 (미국 전직 목회자, 상위 7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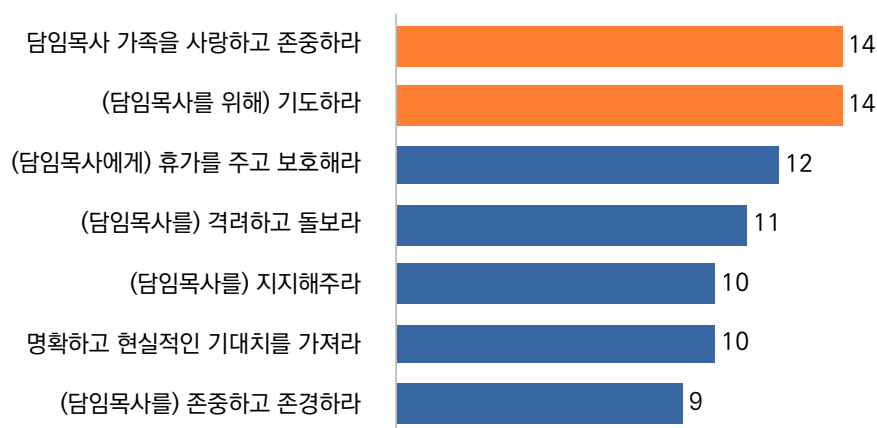


※출처 : 라이프웨이리서치, ‘2025년 목회자 이탈 조사’(Pastor Attrition Study 2025), 2025.08. (하나님의 성회, 나사렛 교회, 웨슬리안 교회, 남침례교 등 4개 개신교 교단의 전직 담임목사 730명, 온라인 조사, 2025.05.06.~07.06.)

전직 목회자가 말하는 목회자를 위한 교회의 역할, ‘목회자 가정 돌봄·기도!’

- 교회가 목회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으로는 ‘담임목사 가족을 사랑하고 존중하라’(14%)와 ‘담임목사를 위해 기도하라’(14%)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목회자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목회자 가정 돌봄’과 ‘영적 후원(기도)’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 다음으로 ‘휴가를 주고 보호하라’, ‘격려하고 돌보라’, ‘지지해주라’ 등의 순이었다. 이는 교회의 적극적 지원과 배려가 목회자의 건강한 사역을 가능하게 함을 시사한다.

[그림] 교회가 목회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 (미국 전직 목회자, 상위 7개, %)



※출처 : 라이프웨이리서치, ‘2025년 목회자 이탈 조사’(Pastor Attrition Study 2025), 2025.08. (하나님의 성회, 나사렛 교회, 웨슬리안 교회, 남침례교 등 4개 개신교 교단의 전직 담임목사 730명, 온라인 조사, 2025.05.06.~07.06.)

이번호 요약

1. 마지막 교회에서 겪은 갈등, 절반이 심각한 인신공격 받음!

- 미국 전직 목회자의 87%는 마지막 교회에서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한 갈등 유형으로는 ‘변화 제안으로 인한 갈등’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평신도 리더들과의 갈등’(50%), ‘심각한 인신공격 경험’(49%)이 절반 정도였다.

2. 전직 목회자 80%, ‘24시간 대기 압박 느껴’!

- 사역 문제 관련 인식을 살펴보면, 전직 목회자의 80%는 ‘하루 24시간 대기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으며’, ‘목회자라는 역할에 압도당하는 느낌을 자주 받았다’는 비율도 64%에 달했다.

3. 전직 목회자가 전하는 목회 성공 조언, ‘가족 우선시’!

- 전직 목회자들에게 현재 목회자들의 사역 성공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물었을 때, 전직 목회자들은 ‘가족을 우선시하라’(20%)는 조언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는 목회 사역이 아무리 중요해도 가정의 안정이 목회 지속의 토대임을 보여준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서적] 성도는 우리 가족뿐입니다 (김민철, 조이북스)

관련 성경 구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 (디모데전서 3장 4절~5절)

목회 적용점

이번 조사 결과는 목회자의 ‘사역 지속 가능성’을 가정과의 균형 속에서 다시 성찰하게 한다. 미국 전직 목회자가 강단을 떠날 때 절반 가까이는 마지막 해에 심각한 갈등을 경험했고, 80%가 24시간 대기 압박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동시에 ‘일정이 겹칠 때 가족을 우선순위에 두었다’(68%)는 응답과 현직 목회자들을 향해 ‘가족을 우선시하라’는 조언이 가장 많이 꼽힌 점(20%)은 목회의 성공이 결국 ‘건강한 가정’ 위에 세워짐을 보여준다.

따라서 목회 현장에서는 ‘가족 돌봄’을 단순한 사적인 문제로 보지 말고, ‘지속 가능한 목회 리더십’의 핵심 과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교회는 목회자 가정을 사랑하고 존중하며(14%), 정기적 휴가와 안식년을 제도화해 ‘섬의 리듬’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목회자 스스로도 공적 영역인 사역과 사역 영적인 개인 삶의 균형을 위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영적 훈련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결국 이번 조사결과는 목회자의 삶이 가정을 후사시키는 ‘오직 사역 중심’에서 ‘가정이 중시되는 건강한 목회 생태계’로 전환될 때, 목회자의 번아웃을 줄이고 교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추석 연휴 발생한 가정폭력 현황
2.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 인식
3. 한국인의 나이와 수명에 대한 인식

넘버즈 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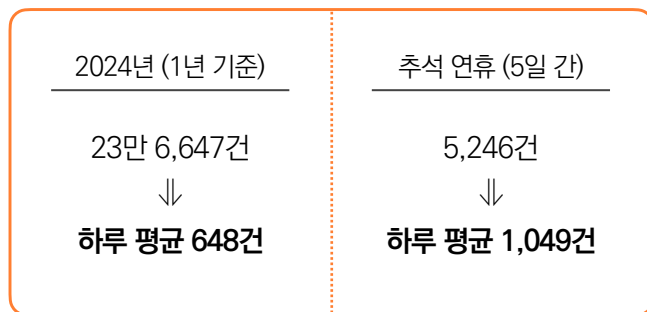
21세기 전쟁과 교회의 응답:
정당한 전쟁은 가능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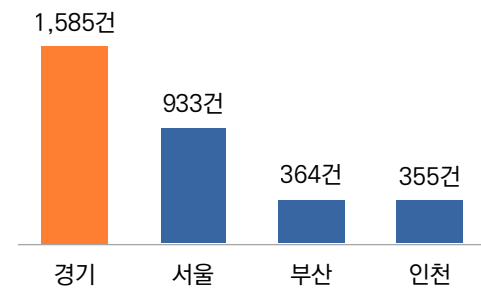
[추석 연휴 발생한 가정폭력 현황] 작년 추석가정폭력, 일 평균 1,049건으로 평소보다 62% 급증!

- 추석 연휴 기간은 가족, 친지들과의 즐거운 만남으로 설레기도 하지만 가정 내 불화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올해 데이터는 아직 발표가 안 돼서, 작년(2024년) 추석 연휴 기간(9월 14일~18일) 발생한 가정폭력 현황을 경찰청 자료(양부남 의원실)를 통해 살펴본다.
- 2024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는 23만 6,647건으로 하루 평균 648건이었는데 반해 지난해 추석 연휴 5일간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는 5,246건으로 하루 평균 1,049건에 달했다. 평소보다 약 400건(62%)이나 신고가 급증한 것이다.
- 지역별로는 '경기'가 1,5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 933건, '부산' 364건 등의 순이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인구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서 가정폭력 신고도 많이 접수되고 있었다.

[그림] 가정폭력 112 신고 접수 건수 (2024년 기준)



[그림] 추석 연휴 기간 지역별 가정폭력 신고 건수
(2024년 기준, 상위 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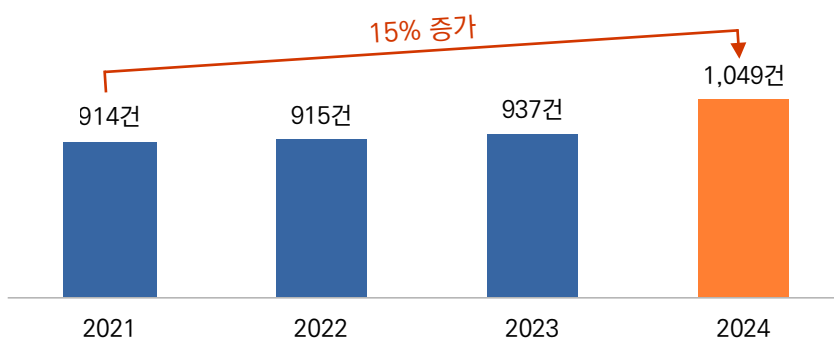


※출처 : 연합뉴스, 누군가에겐 두려운 추석 연휴...가정폭력 62% 급증, 2025.10.05. (<https://www.yna.co.kr/view/AKR202510030329000004?section=search>)

추석 연휴 기간, 가정폭력 신고 매년 증가 추세!

- 추석 연휴 기간 일평균 가정폭력 신고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21년 일평균 914건에서 2024년 1,049건으로 3년 새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추석 연휴 기간 일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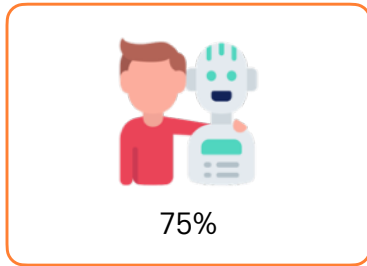
※출처 : 연합뉴스, 누군가에겐 두려운 추석 연휴...가정폭력 62% 급증, 2025.10.05. (<https://www.yna.co.kr/view/AKR202510030329000004?section=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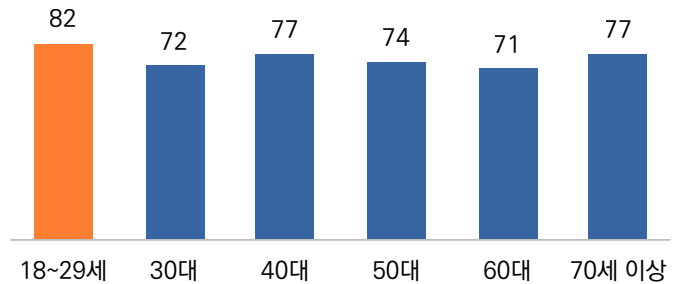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 인식] 우리 국민 4명 중 3명(75%), 'AI에 관심있다'!

-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됐다. 국정과제로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이 지정될 만큼 우리 사회에서 AI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다.
- 최근 발표된 '2025 인공지능 인식조사'(한국리서치) 결과에서도 보면 우리 국민의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는 75%에 달했다. 국민 4명 중 3명꼴로 AI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다.
- 연령별로는 전 연령대에서 70% 이상의 관심도를 보였고, 특히 18~29세에서 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인공지능 관심도 (2025, '관심있다' 비율)



[그림] 연령별 인공지능 관심도 ('관심있다' 비율, 202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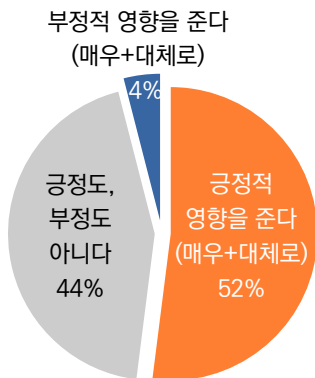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5 인공지능 인식조사]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 및 체감도, 미래 변화 인식, 2025.10.01.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5.06.27.~0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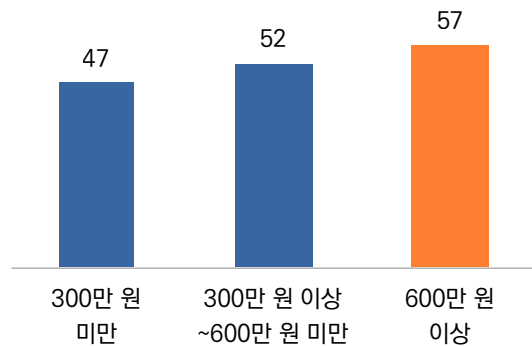
소득수준 높을수록 '인공지능이 나의 삶에 긍정적 영향' 인식 높아!

- 이번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현재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긍정적 영향을 준다'가 52%로 가장 높았고, '부정적 영향'을 언급한 비율은 4%에 그쳤다.
- 가구소득별로 보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긍정 인식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월 평균 '600만 원 이상' 가구는 57%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반면, '300만 원 미만'은 47%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인공지능 기술이 나의 삶에 미치는 영향 (2025)



[그림] '인공지능이 나의 삶에 긍정적 영향 준다' 응답 비율 (월평균 가구소득별, 202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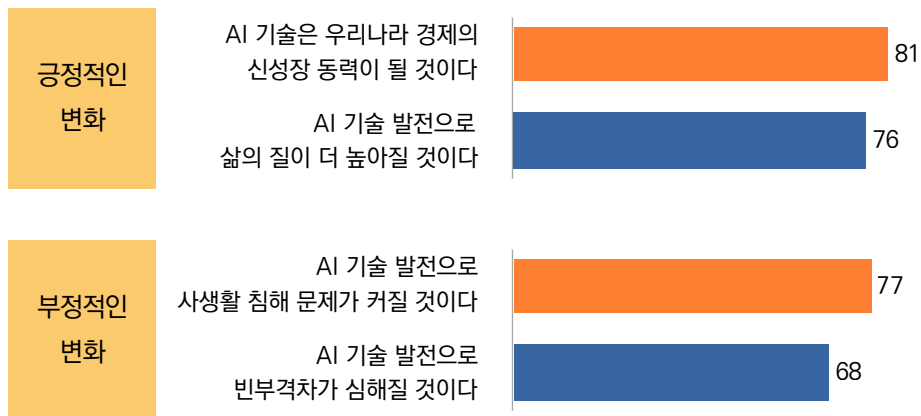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5 인공지능 인식조사]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 및 체감도, 미래 변화 인식, 2025.10.01.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5.06.27.~06.30.)

AI 기술, ‘우리나라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 81%!

-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긍정적/부정적인 변화에 대한 인식(동의율)을 살펴본 결과, 대체로 국민들은 AI 기술 발전의 긍/부정 변화에 모두 공감하고 있었다.
- 긍정적 변화로는 ‘AI 기술은 우리나라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에 81%가 동의했으며, ‘AI 기술 발전으로 삶의 질이 더 높아질 것이다’도 76%의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 부정적 변화 역시 ‘AI 기술 발전으로 사생활 침해 문제가 커질 것이다’(77%), ‘AI 기술 발전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질 것이다’(68%) 등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그림] 인공지능 기술 발전 관련 긍·부정 변화 인식 ('매우+대체로 동의한다' 비율*, %)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5 인공지능 인식조사]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 및 체감도, 미래 변화 인식, 2025.10.01.(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5.06.27.~0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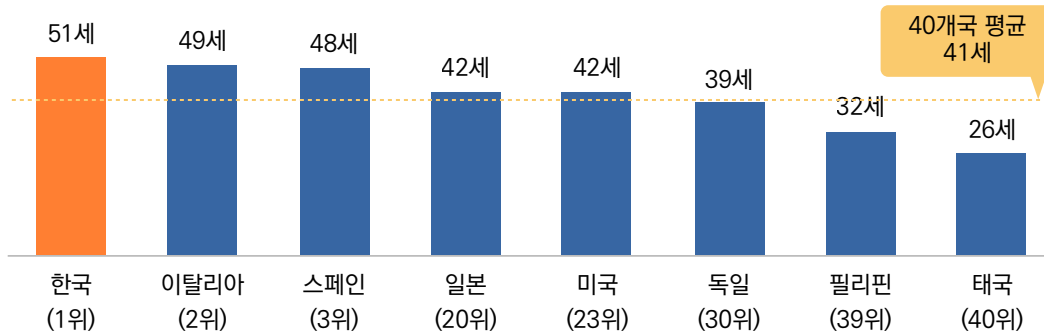
*4점 척도



[한국인의 나이와 수명에 대한 인식] 한국인, 40개국 중 젊다고 느끼는 기간, 가장 길어!

- 한국인을 포함한 세계인이 생각하는 ‘젊지 않다’ 혹은 ‘늙었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나이는 언제일까? 한국갤럽이 글로벌 조사 네트워크 WIN과 함께 한국을 포함한 40개국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스스로 더 이상 젊지 않다고 느끼는 나이’는 40개국 평균 41세였다.
- 그러나 한국은 51세로 조사국 중 가장 나이가 많아, 한국인은 다른 나라보다 스스로 젊다고 느끼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사람들이 스스로 더 이상 젊지 않다고 느끼는 나이 (국가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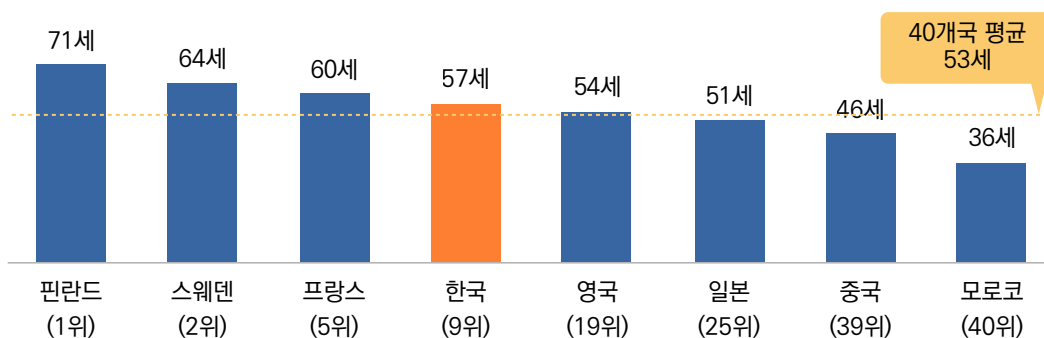


※출처 : 한국갤럽, 자녀 계획, 나이, 삶과 수명에 대한 인식: WIN 다국가 조사, 2025.08.07. (세계 조사: 40개국 성인 총 35,515명 전화/온라인/면접조사, 2024.12.~2025.02./ 한국 조사: 전국 만 19~79세 1,085명, 모바일조사, 2025.01.16.~24.)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574#B>)

한국인, 50대 후반(57세)부터 ‘늙었음’ 자각!

- 사람들이 스스로 늙었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나이는 40개국 평균 53세였고, 한국은 57세로 상위권인 9위에 랭크됐다. 이는 세계 평균보다 4세 많은 수치다.
- 또, 이웃 국가인 일본(51세), 중국(46세)보다는 상대적으로 ‘늙음’을 자각하는 시점이 늦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사람들이 스스로 늙었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나이 (국가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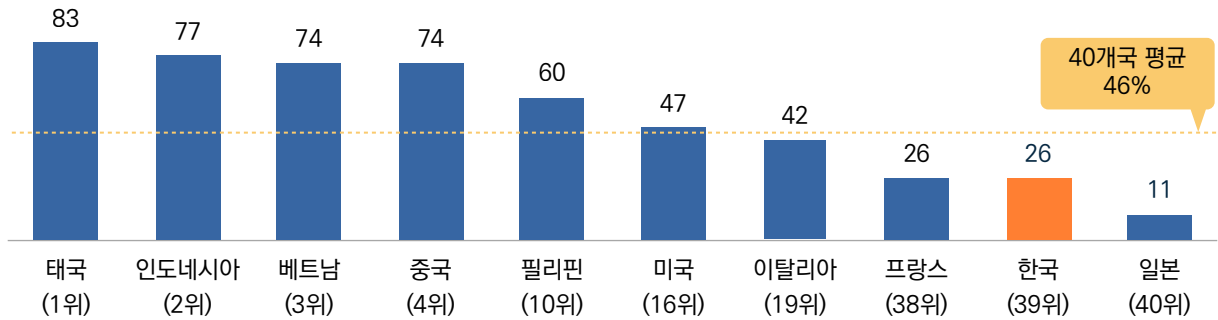


※출처 : 한국갤럽, 자녀 계획, 나이, 삶과 수명에 대한 인식: WIN 다국가 조사, 2025.08.07. (세계 조사: 40개국 성인 총 35,515명 전화/온라인/면접조사, 2024.12.~2025.02./ 한국 조사: 전국 만 19~79세 1,085명, 모바일조사, 2025.01.16.~24.)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574#B>)

한국인의 장수 낙관론, 40개국 중 최하위권(39위)!

- 이번에는 삶과 수명 인식 질문으로 '나는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을 낙관한다'에 대한 동의율을 물은 결과, 40개국 평균은 46%로 나타났다.
- 태국(1위, 83%), 인도네시아(2위, 77%), 베트남(3위, 74%) 등 동아시아 일부 국가들은 높은 낙관 수준을 보인 반면, 한국은 26%로 39위, 일본은 11%로 최하위(40위)를 기록하며, 건강 장수에 대한 낙관적 인식이 매우 낮았다.

[그림] '나는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을 낙관한다' 동의율 (국가별, %)



※출처 : 한국갤럽, 자녀 계획, 나이, 삶과 수명에 대한 인식: WIN 다국가 조사, 2025.08.07. (세계 조사: 40개국 성인 총 35,515명 전화/온라인/면접조사, 2024.12.~2025.02./ 한국 조사: 전국 만 19~79세 1,085명, 모바일조사, 2025.01.16.~24.)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574#B>)

21세기 전쟁과 교회의 응답: 정당한 전쟁은 가능한가?

이춘성 박사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사무국장)

I. 21세기 전쟁: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20세기 말, 인류는 경제적 교류와 글로벌 협력의 시대로 인하여 더 이상 대규모 전면전은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1] 그러나 지난 20여 년은 그러한 낙관을 무참히 무너뜨렸다. 9·11 테러로 상징되는 테러리즘은 세계 질서를 흔들었고, 국지적 분쟁이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사례는 끊이지 않았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023년 이후 격화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은 이 전조들이 절정에 이른 대표적인 전쟁이었다.

1.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지 어느덧 3년이 지났다. 전쟁은 끝이 아니라 소모전으로 굳어졌고, 매일같이 전선은 피로에 젖어 있다. 수도 키이우 점령에 실패한 러시아는 인력과 포탄을 앞세워 밀어붙이고, 우크라이나는 드론과 정밀 타격으로 러시아의 숨통을 죄는 '천 개의 상처' 전술로 맞서고 있다. 서방의 첨단 무기를 등에 업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기에 이르렀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을 거머쥐고 있다.

이 전쟁은 21세기 최초의 국가 간 전면전으로, 새로운 전쟁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초기의 러시아의 전차 돌격이 과거에 비해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드론, 인공지능, 사이버 공격이 교차하는 '디지털 전쟁'으로 변모하였다. 그러나 달라지지 않은 것도 있다. 전선은 고착화되었고, 2025년 가을 현재 하루 160~190회의 교전이 이어지고 있다. 전력망과 주거지가 무차별 공격을 받으면서 민간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며, UN 인권고등판무관실(UN OHCHR)에 따르면 2025년 8월 31일까지 최소 14,116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고, 36,481명이 부상을 입었다. 실제 피해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군 전력의 사상자 규모도 이미 양측을 합쳐 수십만 명에 달한다. 난민과 실항민은 천만 명을 넘어섰다.

2.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또한 단순한 무력 충돌을 넘어선다. 그 뿌리는 20세기 중동전쟁과 점령의 역사에 닿아 있다. 1967년 3차 중동전쟁 이후 팔레스타인의 땅은 '영구 점령지'로 굳어졌고, 그곳은 첨단 무기의 시험장이자 세계 정치의 화약고가 되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대규모 공격이 이번 전쟁의 불씨를 다시 지폈다. 이스라엘은 '초토화 작전'이라 불린 대대적인 군사행동으로 응수했다. 그 뒤로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국제 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현재까지 가자 지구에서만 6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의 보고에 의하면 2만명 이상의 어린이가 희생 당하였다고 한다. 가자는 이제 100년이 지나도 회복하기 어렵다는 절망적 전망이 나온다.

주목할 점은 이 전쟁이 첨단 기술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드론, 정밀 유도 무기, AI 기반의 자동화 시스템이 실전에 배치되며, 그 파괴력은 민간 주거지에까지 미친다. 알고리즘이 표적을 선정하고 공격 순위를 정하는 시대가 왔다. 그러나 효율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이 폭력은 잦은 오판과 편향으로 민간인의 삶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이하 생략)

*칼럼 전문은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koreanchristianethics.com/archive/2697>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추지지율, 50~60%대 고정 이유는...높은 비호감도 '상한선', 내란 극복 정국 '하한선'](#)

국민일보_2025.10.8.

[당정 폭주에 20대 분노... '李 부정평가' 유일하게 더 높아](#)

조선일보_2025.10.10.

[국민 55% "북한, 하나의 국가"...통일 지지층서 증가](#)

YTN_2025.10.6.

[이재명 정부 100일, '외교 대응'이 신뢰도 높였지만... \[2025 신뢰도 조사\]](#)

시사IN_2025.10.7.

사회 일반

[보이스피싱 94%가 '중국발'...피해액 5년간 4조원 돌파](#)

연합뉴스_2025.9.30.

[누군가에겐 두려운 추석 연휴...가정폭력 62% 급증](#)

연합뉴스_2025.10.5.

[자살 사망자 유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1위가 '엄마'](#)

연합뉴스_2025.10.9.

[예식장 식대 6만원 넘었다...“축의금 5만원은 머쓱”](#)

동아일보_2025.10.2.

[한국인 45살에 가장 많이 벌고... 61살부터 소비 많아 '적자 인생'](#)

국민일보_2025.9.26.

["교사 된 걸 후회하고 있어요"... OECD 1위](#)

조선일보_2025.10.11.

[서울대·카이스트·연세대·성균관대...세계 대학평가 100위 안에 안착](#)

매일경제_2025.10.10.

['조희대 사법부' 논란 중, 사법부 신뢰도는? \[2025 신뢰도 조사\]](#)

시사IN_2025.10.8.

[1위 자리 굳히는 MBC, 공고해진 유튜브 영향력 \[2025 신뢰도 조사\]](#)

시사IN_2025.10.9.

아동 · 청소년 · 청년

[\[단독\] 유치원생도 우울하다...10세 미만 정신과 진료 10만명 육박](#)

동아일보_2025.10.8.

[지난해 자살사망학생 221명, 자해·자살시도 등 '사전 징후' 있었다](#)

여성신문_2025.10.9.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귀해진' 청년...20대 인구, 70대 이상에도 추월당해](#)

연합뉴스_2025.10.12.

["전화 좀 자주 해라" 부모님 추석 잔소리...다른 집 자녀들 얼마나?](#)

한국일보_2025.10.3.

노인

[자식 용돈 못받는 '쓸쓸한 황혼'..."자식보다 나라가 낫다" 왜](#)

중앙일보_2025.10.7.

경제 · 기업

[전국 직장인 평균 월급은 '421만원'...1등 지역은 '여기'](#)

국민일보_2025.9.30.

[한국 자영업자 10명중 7명 '100만 원'도 못 번다](#)

위키트리_2025.10.9.

[\[여론조사\] '주 4.5일제' 반대 54%...'정년 연장'은 찬성 81%](#)

SBS뉴스_2025.10.6.

국제 · 환경

[부자들 韓탈출 충격 보고서..."올해 2400명 떠나 21조 유출" 왜](#)

중앙일보_2025.10.6.

건강

[하루 5시간 이하 수면, 남성호르몬 15% 감소...얼마나 자야 건강할까](#)

동아일보_2025.10.12.

기독교 · 종교

[미 성인의 약 절반은 성경이 진리인지 모른다](#)

크리스찬타임스_2025.10.11.

트렌드

[\[핫코너\] 옆집과 굳이 알은척해야 하나요? 젊은층 '이웃포비아'](#)

조선일보_2025.10.13.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원로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민선영, 유영민, 김찬술, 한미경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숭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주)디엔텍세븐컨설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정책연구소, 라잇나우미디어,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안미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치움, 크리스찬타임스, 퓨처처치연구소(FCI),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 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후원 방법 (국내)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방법 (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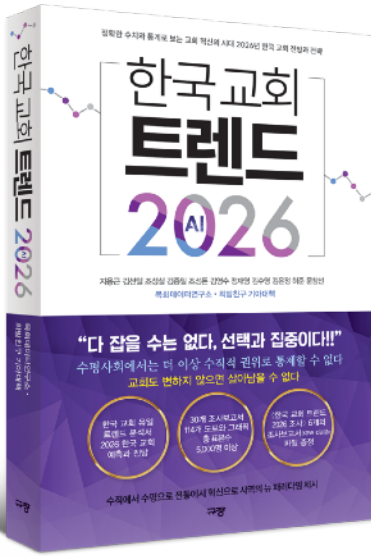
외국에서 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연구소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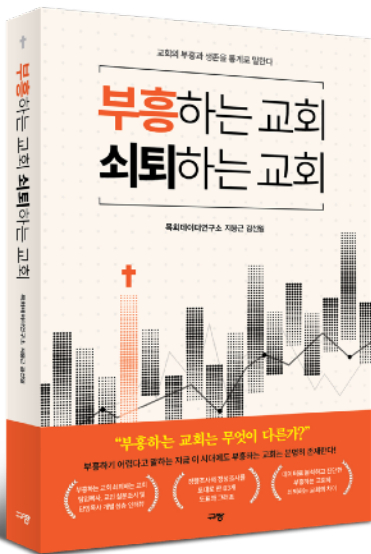
「한국교회 트렌드 2026」 책 구입 안내

목회데이터연구소와 기아대책이 공동으로 준비한 책이 출간됐습니다. 2026년도 예상되는 한국교회 이슈와 트렌드 10가지를 주제로 선정하였는데, 이 책이 내년도 목회 전략을 수립하는데 올바른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책 구입 문의 : 02-322-0726, 유영민 간사)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책 구입 안내

목회데이터연구소는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를 출간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담임목사, 성도를 총 1,320명 조사하여 각각의 특징을 통계적으로 규명하였습니다.

(책 구입 문의 : 02-322-0726, 유영민 간사)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

연구소 소식

‘청빙, 교회의 미래를 좌우한다’ 세미나

향후 10년 내 한국교회 담임목사 2/3가 은퇴를 앞두고 있어 청빙이 앞으로 한국교회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한국교회 트렌드 2026」에서 청빙 문제를 다루었는데 많은 분들이 청빙에 관심이 높아 별도로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 1) 주제 : 청빙, 교회의 미래를 좌우한다
- 2) 일시 : 2025년 10월 20일(월) 오전 11:00~12:15
- 3) 장소 : 연동교회 가나의 집 4층 아가페홀(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37)
- 4) 주요 내용

내용	발표자
1. 청빙 실태와 인식 조사 결과 발표	지용근 대표 (목회데이터연구소)
2. 바람직한 청빙이란	조성돈 교수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3. 지구촌교회 청빙 사례	이원구 장로 (지구촌교회)



2025 어테인(ATTAIN) 온라인 컨퍼런스

한국 소그룹 네트워크(SGN코리아, Small Group Network Korea)가 2025년 ‘어테인 (ATTAIN)’ 온라인 컨퍼런스에 목회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온라인 컨퍼런스는 소그룹으로 유명한 미국 새들백 교회의 전 소그룹 총책임자가 직접 설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올해 두번째로 열리는 SGN 어테인 온라인 컨퍼런스에 참석하셔서 소그룹 운영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1) 일 시 : 2025년 10월 28일(화) 오전 9시~11시 (한국 기준)
- 2) 장 소 : 온라인 줌(Zoom)
- 3) 참가비 : 무료



[참가 신청 링크](#)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